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여러분의 의지력과 창조의 정신, 그리고 기술발전 노력으로 채워 나가 주실 것을



친애하는 도로교통인 여러분!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님, 한국도로교통협회 손학래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16회 도로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도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70년 7월 7일, 37년 전 오늘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경제 발전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뜻 깊은 날입니다.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 분야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외국의 부러움을 사고 서울 올림픽을 비롯해 아시안 게임,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의 국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바탕에는 도로 교통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러분들 그 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로교통인 여러분! 근래 국내외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새로운 다짐과 분발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자동차 보유 현황이 1,600만대를 넘어서고 국민의 절반이 운전자인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걷고, 보고, 달리는 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도심 교통난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과 건설 현장의 환경 훼손에 대한 민원과 환경단체들의 요구 등도 여러분 모두의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를 시작으로 앞으로 가속화 될 국제자유무역의 확대는 피해갈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기술 발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 산업은 도로 건설과 교통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과제들은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여러분의 힘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가 재정의 한정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여러분의 의지력과 창조의 정신, 그리고 기술발전 노력으로 채워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그간의 공헌으로 포상을 받게 되실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 7. 6.

국회의원 김 석 준